



전명옥·박태후·이선복 작
'삼인삼색(三人三色)'

즉흥적 여흥과 감성 '수묵에 노닐다'

은암미술관 25일까지 초대전, 박행보·한상운·백현호 등 참여

'수묵, 즉흥성의 매력.'
광주시 북구 시화문화마을에 자리한 금봉미술관(관장 한상운)은 매년 새해가 되면 문인화가와 서예인들이 함께 모여 한바탕 잔치를 열어왔다. '여흥에 먹풀어'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함께 어울려 그림을 그리고 휘호를 쓰며 신년을 맞이하고, 음식도 함께 나누며 일년의 안녕을 기원했다. 전시장을 찾은 일반 관람객들도 함께 어울려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묵격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특히 주머니 받거나 선후배들이 어울려 화선

지 한 장에 글씨와 그림을 그리는 '공동작업'은 어디서든 볼 수 없는 이 프로젝트만의 기획으로 화제였다. 공동작업물은 참여작가들이 현장에서 시연한 또 다른 작품들과 전시돼 문인화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여왔다.
광주 예술의 거리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금봉미술관과 함께 꾸린 기획초대전 '수묵(水墨)에 노닐다'(25일까지)는 작가들의 자유로움과 즉흥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는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 19로 '여흥에 먹풀어' 행사가 2년째 중단된 상황에서 지

금까지 선보였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
전시에는 금봉 박행보 선생을 비롯해 박태후·한상운·전명옥·윤영동·이선복·김국상 등의 작가가 참여해 모두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수묵의 전통을 다양하게 재해석한 이번 전시작들은 필묵의 조화와 현대적 표현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다채로운 작품들이다.
공동 창작물은 각 작가의 개성이 어우러져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낸다. 박행보·백현호·이선복·홍정호·윤의중·박문수 등 7명의 화백이 함께 그린 '서일상운(瑞日祥雲)', 한글 서예가 전명옥과 화가 박태후·이선복 작가의 공동작 '삼인삼

색(三人三色)', 김국상과 한상운 작가가 함께 작업한 '각학(覺學)' 등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독일 베를린 장벽의 모습을 담은 운영동 작가의 '베를린 장벽 소견', 양시우 작가의 '송구영신'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또 은암미술관과 금봉미술관이 본격적인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화관과 함께 자리한 금봉미술관은 남도 문인화, 한국화 등을 소개하는 기획전을 열고 있으며 문인화 강좌 등을 운영중이다. 은암미술관은 사군자·문인화 등 특별전시와 한시 백일장을 개최하는 등 전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책과 인생'

'조진주 & 아파시오나토 앙상블'

24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프랑스 음악의 낭만과 열정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포시즌 첫 번째 공연인 '조진주 & 아파시오나토 앙상블'이 2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감각적인 연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와 마티외 에르조그가 자휘하는 프랑스 연주 단체 아파시오나토 앙상블이 함께 꾸미는 이번 공연은 조진주가 지난해 생상스 서거 100주기를 맞아 발매한 음반 'Saint-Saens'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 앨범은 조진주의 네 번째 음반으로 생상스 '바이올린 협주곡 1.3번', '로망스', '하비네이즈' 등이 수록됐으며, 기념공연은 24일 광주를 시작으로 25일 성남, 26일 통영 등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생상스의 곡 뿐 아니라 드뷔시, 포레, 라벨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공연은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으로 시작하며 이어 생상스 '로망스', 포레 '자장가', 라벨 '시간느',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들려준다. 생상스의 '아바네즈',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도 연주한다.

조진주는 지난 2006년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1위와 관중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이목을 끌었다. 이후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율리앙 국제 콩쿠르 2위, 엘리스 손펠트 국제콩쿠르 1위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에 맥길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앙코르 챔버 뮤직 여름 캠프를 설립해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조진주와 협연하는 아파시오나토 앙상블은 에벤 파르렛의 창립 멤버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마티외 에르조그가 이끄는 단체다. '실내악을

통한 교향곡의 재발견'을 모토로 21세기 챔버 오케스트라만의 새로움과 우아함, 비전을 보여주고자 창단했다. 이들은 모차르트의 마지막 3개 심포니를 레코딩해 찬사를 받는 등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다.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062-613-82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조진주(왼쪽)와 마티외 에르조그.

한지, 책, 그림의 만남

김정숙 '책과 인생' 전, 20일까지 양림미술관

한지를 겹겹이 붙여 만든 책과 그림이 만났다. 누군가가 버린 문짜고 오래된 문짜지 '창작과 비평'도 작품의 재료가 됐다. 김정숙 작가 개인전 '책과 인생 II' (20일까지 양림미술관)전은 '책'을 소재로 삼아 작업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다.

올해 백제예술대를 정년퇴임한 김 작가는 '책과 인생'이 깊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출판을 가르쳤다. 책을 평생의 벗이자 스승, 삶의 동반자라고 말하는 작가는 북아트 작업 등을 통해 책을 예술과 접목시켜왔고, 다채로운 실험을 계속했다.

그의 작품 재료는 모두 '한지'다. 자연을 품고 있는 한지의 물성에 마음을 빼앗겼고, 한지의 매력에 빠져들며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살아온 인생이 '책'과 연결되다보니 자연스레 북아트 등 책과 관련된 작업이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지난 2016년 열린 '책과 인생' 첫 전시가 양장본을 중심으로 아방가르드한 작품을 선보인 기획이었다면 이번 개인전은 우리 전통 책인 고서(古書)를 주재료로 등장시켜 고전미와 모던함을 강조했다.

작가는 다양한 한지와 색실을 이용해 만든 책을 화면에 자유자재로 배치하며 독특한 조형미를 만들어낸다. 특히 작품 배경에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작품에 독창성을 부여한다. 분홍 연꽃과 녹색 잎이 어우러진 연꽃을 그린 수채화가 주 배경으로 등장한다. 정갈한 수묵화와 방문 그리기 달린 한옥의 방 문에 그린 매화와 그 아래 놓인 한지 책 조형물 특별한 느낌을 자아낸다.

또 한지를 물에 개어 소재의 일부분을 표현하고, 마치 누군가의 사랑방에 놓인 것처럼 고서를 배치한 작품도 인상적이다. 그밖에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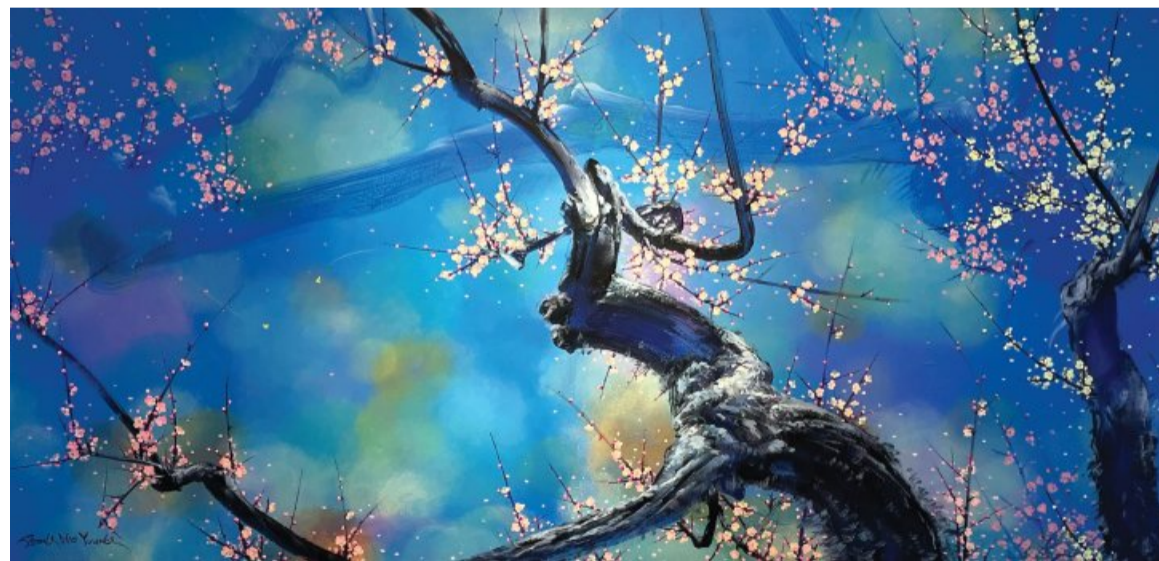
보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알록달록한 다채로운 한지를 활용하고 바느질을 한 후 책을 담은 종이박스를 잘라 자유롭게 배치한 작품도 눈길을 끈다.

김 작가는 "제가 좋아하고 또 제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한지와 책을 가지고 작업하는 게 참 행복하다"며 "작품이 갖는 색다른 조형미를 느껴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제예술대 교수로 28년 재직된 김 작가는 전 남대를 졸업하고 언론사에 근무했으며 중앙대 언론학석·박사를 받은 후 미국 UCLA에서 박사 후 과정을 이수했다. 전주한지조형작가회, IAPMA(국제종이작가회), 한국 북아트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무등미술대전 추천작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다시 봄, 매화'



'날다-봄에 대한 소소한 감정'

광주문예회관, 서포터스 모집 20일까지 접수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하경원)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문화행사 소식을 전해줄 3기 서포터스를 모집한다.

서포터스는 3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온라인 채널(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을 이용해 문예회관 소식(공연·전시·축제 등)을 홍보하는 일을 하게 되며 소정의 원고료 지급, 공연 관람 기회 제공, 우수 기자 특별 부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분야는 기사, SNS, 사진·영상 등 3분야로 총 15명을 선발하며 문화예술공연에 관심이 많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은 20일까지이며 서류합격자는 21일



발표한다. 면접은 23일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25일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613-8232.
/전은재 기자 ej6621@

정해영 전, 28일까지 화순 태곳미술관...등록사립미술관 재개관

'봄을 알리는 매화를 만나다.'
화순 태곳미술관(화순읍 내평길 39-1)이 올 첫 전시로 정해영 작가 초대전(28일까지)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7년 '도 갤러리'로 문을 연 태곳미술관이 올 초 등록사립미술관으로 재개관, 재도약을 기약하며 여는 첫 기획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시 봄이 오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매화'를 주제로 끊임없이 작업해온 정 작가는 추위 속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매화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그가 표현하는 매화는 긴긴 겨울을 견뎌낸 설중매, 고목에서 피어난 흥매화 등으로 강렬한 푸른 빛 배경 색채와 어우러져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게 해준다.

전남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정 작가는 광주 시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광주 예

술의 거리에 작업실과 함께 정해영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서양화가 김선미 작가와 남편 차정우씨가 함께 운영하는 태곳미술관은 관장을 맡고 있는 차씨의 텃자리로 예술로 살아가는 농촌의 미래를 꿈꾸며 두 사람이 문을 열었다.

북한문화공간으로 시작해 청년작가기획전시, 지역작가 초대전, 융복합 전시와 공연, 농촌마을 예술벽화 사업 등 다양한 문화 살업을 진행했다. 또 예술문화관련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쓰고 있다.

미술관은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바쁜 직장인들도 문화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오후 8시까지 개방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화순 태곳미술관